

# 신생 러시아 聯邦軍에 있어서의 인력충원체제: 과연 지원병제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심 경 옥

## I. 머리 말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련 전문가들은 징집연령층 인구의 절대 부족과 러시아어에 서툰 모슬렘계 사병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로 말미암아 소련군 지도부가 늦어도 198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선 인력 충원방식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전망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1988년 여름에 이르러 페레스트로이카의 대진동이 군 내부에까지 공명을 일으키자, 과연 서방과의 전략무기 통제협상이나 군병력 감축문제 못지않게 현행 인력충원제도에 있어서의 폐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관련 잡지나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su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 1) 중앙아시아 거주 모슬렘계 민족들의 '인구폭발' 현상이 소련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던 대표적인 저술들을 소개하면 Alexander R. Alexiev, *Gorbachev's Muslim Dilemma* (Rand Report P-7300, Jan. 1987); Jeremy A. Azrael, *Emergent Nationality Problems in the U.S.S.R.* (Rand Report R-2172-AF, Sept. 1977); Edmund Brunner, Jr., *Soviet Demographic Trends and the Ethnic Composition of Draft Age Males 1980-1995* (Rand Report N-1654/1, Feb. 1981); Murray Feshbach & Stephen Rapaway, "Soviet Population and Manpower Trends and Policies," in *The Soviet Economy in a New Perspective*, (Washington, D.C.: U.S. G.P.O., 1976); Richard Pipes, "L'U.R.S.S. en crise," *Politique étrangère*, No 4, Dec. 1982, pp. 867-880; Teresa Rakowska-Harmstone, et al., *Warsaw Pact-The Question of Cohesion: Phase II, Vol. 3. : U.S.S.R., Bulgaria, Czechoslovakia and Hungary* (ORAE Extra-Mural Paper No. 39) (Ottawa: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1986); S. Enders Wimbush, (Ed.), *Soviet Nationalities in Strategic Perspective* (London, Sydney, Croom Helm 1985).
- 2)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군 내부에 있어서의 글라스노스찌정책의 시행이었다. 글라스노스찌 정책의 효력이 군사언론에까지 파급되어 장교급에서 일반 사병들에 이르는 모든 부정부패 및 부조리들이 살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봄부터였

특히, 신군사독트린의 개념이 어렵듯이나마 규명되면서부터 실제 군조직 개편에 '합리적 방위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또한 합리적 군 인력관리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군부 고위층과 민간 전략가들 사이에서 신문지상을 통해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공방전은 1989년 봄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sup>3)</sup>

1989년 여름 인민대표회의는 국방에 관련된 시급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안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하일 A. 모이세예프 당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최고위 장성들은 성급한 개혁을 경계, 우려하는 경고문들을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지(紙)에 연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는 창립과 동시에 당시 국내의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실로 급진적인 군사개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제28차 전당대회 개최 직후인 1990년 8월 17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현재의 의무병역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육·해·공군 등 5군 중의 일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에 의해 직접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선 지원병제의 완전도입 가능성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안에 관한 논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었다.

1990년 12월, 군사전문지 「군사사고(軍事思考); Voennaia mysl」는 '새로운 군사독트린'과 '군사개혁의 기본지침'에 관련하여 국방성이 인민대표회의에 상정한 문안(文案)들을 공개하였다. 이 두 문안의 게재는 군 지도부에서 군사독트린에 대한 변화나 군체제 개편에 대한 방침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수 년동안 군부 지도층에서 골몰해 온 군개편에 대한

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내 반전(反戰)운동의 파급 및 병역기피 사태라든지, 과거 수십여 년 동안 금기(禁忌)로 간주되어 일체 언급하지 않던 소련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 즉 장교급과 사병들, 또한 사병들간의 민족적 반목과 그에 따른 신체적 학대 등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군사신문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나 월간지 「코무니스트 보오루촌느이 쉘」의 지면은 가득찼다.

- 3) Lt. Colonel Alexandre Savinkine, "Quelle Armée nous faut-il?" *Nouvelles de Moscou*, Feb. 1988, p. 6; "...A problemy ostaiutsia," *Argumenty i fakty*, No 35, 1988, pp. 1-2; Iu. Moroz, "Est' predlozheniia...", *Krasnaia Zvezda* (이하 K.Z.로 약칭), Sept. 13, 1989, p. 1; "A kakova sud'ba praporshikov?" *K.Z.*, Sept. 15, 1989, p. 1; S. Taranov, "Glasnost' i gosudarstvennaia bezopasnost'," *Izvestiia*, June 26, 1989, p. 2; Grant Goukassov, "L'Armée : possibilité de choisir," *Nouvelles de Moscou*, No 17, April 1989; Colonel-General Mikhail A. Moiseev, "S pozichii oboronitel'noi doktriny," *K.Z.*, Feb. 10, 1989, pp. 1-2; Bernard Guetta, "Plaidoyer en faveur d'une armée professionnelle," *Le Monde*, June 29, 1989, p. 3.

내용과 깊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특히, 당시 국방성의 '군사개혁의 기본지침'은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미래의 군 충원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개병제(皆兵制)에서 모병제(募兵制)로의 전면적인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해군 징집병들의 복부기간 감축과 더불어 자원병들의 비율 증대 등의 조치들을 통해 지원병제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충원체제 개혁의 의사는 그 후 1991년 7월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군사언론을 통해 재확인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혁명은 군 체제개편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개병제를 보전하려고 끝까지 힘쓴 보수파 핵심 장성들이 축출됨에 따라 신군부가 보다 빠른 속도로 군병력을 감축, 재정비한다는 방침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놓은 개편안 중 군의 직업군화 문제가 하나의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1991년 12월, 슬라브 3국 수반들이 브레스트회동을 통해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킴으로써 일어난 연방권력 소멸은 소련군에게도 군 지휘계통 및 조직의 와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550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유지해 온 연방군은 이제 백수십만 명 수준에 그치는 일개 민족국가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혁명적 전환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1990년 초 구소련군 최고사령부에서 채택하였고 1992년 4월 이전까지 CIS 통합군 체제하에서 계속 견지되어 왔으며, 또한 신생 러시아연방군에 의해서도 계승될 것으로 보이는 군의 직업군화와 그 시행과정 및 전망에 대한 연구이다. 한걸음 나아가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 목표는 식언군화 과정에서 지원병제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군 지도부가 추구하는 인력충원 방식 합리화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시행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연방소멸과 함께 구소련군이 해체되는 과정과 이를 계승하는 신생 러시아군의 창설 과정 및 조직체계에 대한 고찰이다. 따라서 첫번째 장(章)에서는 비러시아계 공화국들의 독자군 창설 현황과 아울러 러시아 창군 과정이 기술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장에서는 1992년 5월 7일자 대통령령에 의해 공포된 러시아 연방군의 인력충원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6, 7월 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병역법 소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세번째 장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지원병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공세적 전략개념 포기, 그에 따른 새로운 안보개념의 수용, 군의 현대화와 대규모 병력감축에 따른 인력 자원의 자질향상 요구, 그리고 군내부 규율 및 기강확립의 필요상에 대한 기술이다. 특히 마지막 요인은 소련군 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사회에 있어서 연방권력을

와해시킨 배경과 일면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요컨대, 다민족군 병영생활 속의 갈등과 반목, 국방비 감축에 따른 최악의 복무여건 등으로 인한 규율 이완과 사기 저하에 대한 상황분석은 지원병제 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할 것이다. 아울러 이 장은 신생 러시아군이 계승하게 될 구소련 군사환경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1967년 10월 12일 이후 오늘날까지 구소련군의 토대를 이루어 온 일반의무병역제의 포기가 러시아연방군에 의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분석, 전망하려고 한다. 동시에 충원체제 개편으로 인해 러시아가 짊어지게 될 재정부담을 고려, 향후 충원방식의 형태 및 그 효과를 파악하려고 한다.

## II. 러시아연방군의 창설

### 1. 구(舊)소련군의 해체 과정

1991년 12월 연방권력의 붕괴와 함께 보리스 옐친을 비롯한 CIS 가맹국 수반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새로운 국가연합의 군사안보체제의 장래였다. 그들 앞에 놓인 대안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즉, 첫째, 과거 구소련에서처럼 하나의 군대를 단일통제하에 예속시키는 방안, 둘째, 이른바 핵전력을 포함한 전략군병력만 단일통제하에 두는 통합군 형태, 세번째로는 신생공화국들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자체 군조직을 보유, 통제하는 대안이었다.

연방이 붕괴되고 중앙권력이 소멸된 상황에서 과거 소련군과 같은 단일군사체제는 불가능하였다. 동시에 가맹국들로 하여금 자위대 수준의 군조직 보유는 허용하되 독립국가연합을 공동방위 체제하에 보호한다는 통합군 방안도 더 이상 러시아인들에 의한 권력독점을 허용치 않겠다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및 아제르바이잔 등의 완강한 반발로 인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독립국가연합 가맹국들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통합군 관할에 들 '전략군'의 한계를 두고 논의해 왔으나 번번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특히 러시아연방(聯邦)과 우크라이나는 전략군의 범주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통합군은 주로 핵관련 전력에 주안점을 둔 소규모 조직만을 의미하는 반면, 러시아는 핵전력은 물론 해군, 공군, 국토방공군, 그리고 다수 지상군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고집했던 것이다.<sup>4)</sup>

4)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가 독자군을 창설한 오늘 CIS 통합군의 범주는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샤푸슈니코프 통합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병력은 전략미사일군, 공군

1992년 초의 흑해함대 통제권 시비는 전체 가맹국들이 참여하는 통합군 체제와 독립국가연합이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흑해함대 통제권 공방은 우크라이나가 통합군체제를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측에서는 전체 통합군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현재 각 독립공화국은 영내 주둔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하거나, 적어도 공동 관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통합군 병력은 과거 소련군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들에 주둔해 있던 것과 같은 형식으로 독립국가연합 가맹국 영내에 일관성있게 주둔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각 공화국이 독자군을 창설하게 되고, 러시아군이 조직체계를 갖추어 군관구 개편을 완료하게 되면 통합군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하거나, 러시아와의 쌍무적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일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만이 참여하는 부분적 합동군의 형태로서만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우크라이나군 창설 현황

1991년 10월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가 자체 정규군을 창설할 것을 결의한 데 이어 12월부터는 3만 명 규모의 자위대가 조직되었다<sup>5)</sup>. 또한 1992년 1월 3일자로 우크라이나 소재 핵전략병력을 제외한 47만 명 군병력과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 관할하에 둘 것임이 공식 선포되었다.<sup>6)</sup> 흑해함대에 관련하여 그 중 핵전력도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러시아연방과 침예하게 대립해왔다.<sup>7)</sup>

소속 전략핵 전력, 해군 소속 핵전력, 우주항공부대이다.

5) 타스통신, 모스크바판(發), 1991년 12월 27일, *FBIS-SOV-91-250*, Dec. 30, 1991, p. 50.

6) 키에프 라디오, 1992년 1월 2일, *FBIS-SOV-92-003*, Jan. 6, 1992, p. 49; 1992년 1월 5일 모스크바 TV, *op. cit.*, p. 50.

7) 흑해함대의 모항(母港)인 세바스토폴은 제정(帝政)러시아 시절에도 유일(唯一)한 항공적 부동항이었으며 지중해로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는 흑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소련체제 하에서도 흑해함대는 북해함대와 태평양함대와는 달리 전략핵 탑재잠수함을 갖추고 있던 않았으나 세바스토폴, 포티, 오넛싸를 비롯한 크리미아의 부동항(不凍港)들은 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함대들에 못지않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로 미해군 제6함대와 프랑스 지중해 함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력면(戰力面)에서 오히려 양국 함대를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옛 소련 해군력 중 약 육분의 일을 차지하는 흑해 함대의 전력 또한 막강하다. 우선, 천 톤급을 훨씬 웃도는 75척의 전함이 진력 핵심으로서 약 220여 척의 부속함들과 28척의 잠수함들이 보완하고 있다. 공격전력은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헬기를 탑재한 2개의 항공모함이 그 주축을 이루어

콘스탄틴 모로조프(Konstantin Morozov) 국방장관 지도하에 신생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군 체제하의 키예프, 카르파치아 및 오데사 군관구 소속 병력 및 군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조직되고 있는 중이다. 1992년 봄부터 정식으로 개병제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출신 청년들만을 징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전략군 병력도 포함하고 있으며 해군 창설도 서두르고 있다.<sup>8)</sup> 그러나, 재정상 여건도 고려하는 한편, 기동력이 강화된 병력의 소수정예화를 위해 1995년 후반까지는 20-23만 명 규모로 현병력을 감축, 재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다.

현재 통합군 사령부는 우크라이나의 핵전략군도 통합군 지휘통제하에 남아 있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우크라이나 소재 신략군 중 주요 병력은 우크라이나 국방성이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sup>9)</sup>

## (2) 벨라루시군 창설 현황<sup>10)</sup>

벨라루시는 1991년 12월 초 국방부 조직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3월 20일을 창군(創軍) 전차 개시일로 공식 발표하였다.<sup>11)</sup> 자체군 병력 규모는 자상군 4만 명과 공군 및 방공군을 합해 3만2천 명, 또한 장교단 2만2천 명을 포함하여 모두 약 9만5천 명 수준에서 머무를 듯하다. 현재 영내 주둔하고 있는 CIS 통제하의 전략군 병력은 약 3만5천-4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sup>12)</sup>

신생 벨라루시군은 구벨라루시 군관구를 중심으로 창설되고 있는 중이며 동군관구 소속 장교 및 하사관급이 벨라루시군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왔다. 또한 후해기지에 분할 배치된 항공대는 전투기, 요격기, 정찰기 등 약 300대를 웃도는 전력을 과시해왔다. 75척의 주요 전함들이 한결같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는 가하는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공모함이든 순양함이든 간에 대잠수함(對潛水艦)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이들이 탑재한 핵미사일의 위력은 5 kt에서 500 kt에까지 이른다. Jacques Isnard, "Des munitions nucléaires dans l'escadre," *Le Monde*, 1992년 1월 7일, p. 3;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pp. 38-39, 43-45.

8) Pavel Fel'gengauer, "Rossiiskie vooruzhennye sily dolzhny byt' sozdany k 9 maia," *Nezavisimaia Gazeta* (이하 N.G.로 약칭), 1992년 4월 15일, p. 2.

9) 위의 글.

10) "Defense Minister on Forming Republic Army," *K.Z.*, 3, Jan. 92, p. 1, *FBIS-SOV-92-004*, 7, Jan. 92, pp. 66-67; P. Chernenko, "Belarus' budet sozdavat' svoiu armiiu poetapno, utberzhdact Mechislav Grib," *K.Z.*, 27, Feb. 1992, p. 2.

11) P. Chernenko, "Belarus' budet sozdavat' svoiu armiiu poetapno," *op. cit.*

12) Igor' Siniakovich, "Iadernoe razozhzenie kak predmet torga," *N. G.*, April 24, 1992, pp. 1, 3.

벨라루시군 간부들 중 벨라루시 출신은 불과 18%에 지나지 않으나 대다수의 비 벨라루시계 장교들이 그들의 안정된 근무지를 떠나 모국으로 귀환할 뜻을 갖고 있지 않아 장교단의 다민족적 색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듯하다.<sup>13)</sup>

그런데, 현존하는 병력 유지를 위해 약 300억 루블이 필요하지만 국방예산으로 겨우 80억 루블만이 할당되어 있는 까닭에 급격한 병력감축을 진행 중에 있다.<sup>14)</sup> 벨라루시 소재 62개 부대병력을 연말까지 20개 안팎으로 줄일 예정이며, 구벨라루시 군관구 병력의 40%를 감축하는 것과 함께 수천 명의 장교들을 향후 2, 3년 동안 전역시킬 계획이다.<sup>15)</sup>

파벨 코즐로프스키(Pavel Kozlovskii) 신임 국방장관<sup>16)</sup>에 의하면, 현재 벨라루시에는 구소련군의 최첨단 공격장비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세적 군사독트린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유 중인 전차들을 대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기동성에 중점을 두게 될 지상군은 주로 공수부대 및 공중강습부대 병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될 계획이다. 특히, 코즐로프스키 장군을 비롯한 벨라루시 지도부는 자국의 특이한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핵전력을 앞으로도 보유할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sup>17)</sup>

벨라루시군은 가장 시급한 지휘관 양성을 위해 영내 소재 방공미사일학교를 개편, 교관 양성기관으로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군 간부후보 양성학교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8-13세 아동들을 위한 군사교육기관인 수보로프학교도 현재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3) 몰도바군 창설 현황

1992년 1월 5일 그리고류폴시(市) 소재 구소련 내무부 산하 치안유지군 1개 대대가 몰도바에 대해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몰도바 자위대 창설의 토대가 되었다.<sup>18)</sup> 공화국 영내 소재 구소련군 병력을 바탕으로 창설될 몰도바군은 약 만 2

13) 위의 글.

14) Pavel Fel'gengauer, "Rossiiskie vooruzhennye sily dolzhny byt' sozdany k 9 maia," *N.G.*, April 15, 1992, p. 2.

15) "Defense Minister Outlines Cuts in Armed Forces," *INTERFAX*, 1620 GMT, May 23, 1992, *FBIS-SOV-92-103*, May 28, 1992, p. 56.

16) 국방부 창설과 함께 표트르 차야스(Petr Chayas) 장군이 장관으로 선임되었으나 그 후 3개월 동안 벨라루시 군관구 지도부와의 이견으로 국방장관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 끝에 4월 22일 의회에 의해 코즐로프스키 장군이 임명되었다. Igor' Siniakevich, "Iadernoe razozhuzhenie kak predmet torga," *N.G.*, April 24, 1992, pp. 1, 3.

17) 위의 글.

18) "Security Chairman on Armed Forces Formation," *Rossiiskaia Gazeta*, Jan. 4, 1992, p. 1, *FBIS-SOV-92-004*, Jan. 5, 1992, p. 70.

천 내지 만 5천 명의 직업군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동시에 6개월 의무병역제를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수 십만명 규모의 예비병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독립을 선포한 드니에스트르 지역에는 별도로 6-7백 명 규모의 러시아계 자위대가 조직되어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소속 14군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몰도바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sup>20)</sup>

#### (4) 그루지야군 창설 현황

1990년 연방분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직된 수만 명의 자위대 및 공화국군이 이미 활동 중에 있다. 1992년 5월에는 러시아와 영내 소재 군사장비를 분할, 이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6월 현재 난립해 있는 불법 무장단체들을 그루지야군에 합병하려고 애쓰고 있다.<sup>21)</sup>

#### (5) 아르메니아군 창설 현황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조직된 십 수만 명 규모의 무장조직이 88년부터 이미 활동해왔다. '조국의 수호자'(fedains)라고 일컬어지는 이 무장조직은 지휘관급에서 일반 사병들까지 기부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정식 직업군이었으며, 영내 구소련군 병기창을 탈취하거나 해외 동포들의 헌금에 힘입어 중무장해 왔다.

1992년 4월 아르메니아 의회는 독자군 창설을 승인하였으며, 5월에는 러시아와 영내 소재 군사장비 분할 및 이전을 결정, 창군을 서두르고 있다.

#### (6) 아제르바이잔군 창설 현황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둘러싼 유혈 분쟁이 시작되면서 십 수만 규모의 자위대가 이미 조직되었다. 이들 조직은 영내 구소련군 병기창 탈취를 통해 혹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병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Interior Troops Unit Pledges Allegiance," *INTERFAX*, 1756 GMT, Jan. 8, 1992, *FBIS-SOV-92-004*, p. 70; "President Signs Military Service Decree," 모스크바 라디오 1300 GMT, Nov. 14, 1991, *FBIS-SOV-91-221*, Nov. 15, 1991, p. 78.

20) Natalie Gross, "Russian Press Review: The New Armies," *Jane's Intelligence Review*, Feb. 1992, p. 94.

21) "Iseliani Orders Armed Groups To Join Army," *INTERFAX*, 1216 GMT, June 11, 1992, *FBIS-SOV-92-114*, June 12, 1992, p. 94.



1992년 5월, 러시아와 자국내 소재하는 군사장비를 분할,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직 장비 및 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라힘 가지예프(Rakhim Gaziev) 국방장관 책임 하에 약 3-4만 명 정도의 독자군이 창설되어 있으며 카스피해함대 일부도 통제하고 있다.

(7) 카자흐군 창설 현황

1991년 12월부터 구소련 내부부 산하 치안유지군 병력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조직되어 왔다. 1992년 5월 러시아군 창설 선포에 이어 카자흐스탄도 독자군 창설령을 공포하였다. 5만 명 규모가 될 신생 카자흐군은 공화국에 소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기초하여 창설되고 있는 중이다.

1992년 5월 25일 러시아와 쌍무적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자군 창설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기로 하였으며, 군사기지 및 제반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영공을 공동방위할 것에 합의했다. 이는 독립국가연합내 최초의 쌍무적 군사동맹으로서 금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쌍무 관계의 본보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sup>22)</sup>

(8) 우즈베크군 창설 현황<sup>23)</sup>

1991년 가을부터 구소련 내부부 산하 치안유지군 병력을 바탕으로 자위대가 조직되어 왔다. 우즈베크군은 공화국내 소재해 있던 소련군 병력체제에 기초하여 창설될 계획이다.<sup>24)</sup> 이를 위해 최근 루스탐 아흐메도프(Rustam Akhmedov)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 4인의 국방차관 및 270 명 참모로 구성되는 국방부가 신설되었다.<sup>25)</sup>

(9) 투르크멘군 창설 현황

투르크멘 정부는 1992년 1월 투르크멘 출신 장교의 절대 부족<sup>26)</sup>과 재정문제

22) Jan Krauze, "Le Kazakhstan a signé un traité d'amitié avec la Russie," *Le Monde*, May 27, 1992, p. 3.

23) "Defense Ministry Favors Unified Armed Forces", 모스크바 TV, 1640 GMT, *FBIS-SOV-91-213*, Nov. 4, 1991, p. 84.

24) 1989년 통제에 의하면 구소련군 장교들 중 우즈베크계는 1.6%를 차지했었다. *Sovetskii vojn*, no. 4, 1989, Dale R. Herspring, "The High Command and the Future of the Soviet Military Personnel System," in Susan L. Clark (ed.), *Soviet Military Power in a Changing Worl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1), p. 190에서 재인용.

25) N. Gross, "Russian Press Review: The New Armies," *op. cit.*, p. 95.

26) 1989년 통계를 보면 구 소련군 전체 상교들 중 투르크멘인은 통틀어 400명 정도였다. *Sovetskii vojn*, no. 4, 1989, Dale R. Herspring, "The High Command and the

로 인해 자체군을 창설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반복하여 6월 8일 독자군을 창설할 것임을 발표하였다.<sup>27)</sup> 신생 투르크멘군은 과거 투르크메스탄 군관구 소속 쿠쉬키사단과 키질-아르발사단을 기초로 현재의 십 일만 명의 사병 중 2만8천 병으로 감축, 창설될 예정이다. 5월 25일 선포된 대통령령에 의하면 일반 사병들은 개병제에 의거하여 해군은 2년, 지상군을 비롯한 다른 징집병들은 18개월동안 근무하게 된다.<sup>28)</sup>

자국의 공군 및 방공군병력을 러시아와의 합동사령부 관할에 두기로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첫째, 병력 소집 및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둘째, 양국 합동군에 복무하는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군인으로서 등록될 것이며, 셋째, 군인들은 출신 국가에 대해 충성을 서약할 것, 넷째, 장교들의 근무지 순환기간을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반감할 것, 마지막으로 러시아 사병은 군복무 종료와 함께 원한다면 투르크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금은 시민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29)</sup>

#### (10) 타지크군 창설 현황

1992년 1월 바크롬 라흐모노프(Bakhrom Rakhmonov) 소장(小將)을 안보담당 자문역 및 신생 공화국자위대 총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자체군 창설 준비에 착수하였다.<sup>30)</sup> 영내 소재 구소련군 병력을 바탕으로 개편해 나가되 점차적으로 타지크인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므로 군 창설을 완료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sup>31)</sup>

#### (11) 키르기즈군 창설 현황

1991년 12월 알마아타협정 체결 직 후 아카예프 대통령의 자위대 창설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공화국 영내 소재 병력을 바탕으로 독자군 창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선 군인들에게 충성의 서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키르기즈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르크멘의 경우처럼 러시아와의 쌍무적 군사동맹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sup>32)</sup>

Future of the Soviet Military Personnel System," *op. cit.*, p. 190에서 재인용.

27) "독자군 창설 방위협정, 러시아-투르크메프," 「동아일보」, 1992년 6월 9일, p. 4.

28) "Reduction of Military Formations Planned," *POSTFACTUM*, 1623 GMT, May 26, 1992, *FBIS-SOV-92-110*, June 8, 1992, p. 58.

29) "Official's on Military Treaty With Russia," *INTERFAX*, 1545 GMT, June 11, 1992, *FBIS-SOV-92-114*, June 12, 1992, p. 82.

30) 모스크바 라디오, 1992년 1월 3일, *FBIS-SOV-92-003*, Jan. 6, 1992, p. 61.

31) "Chairman Says Republic 'To Build Armed Forces,'" *INTERFAX*, 1415 GMT, June 10, 1992, *FBIS-SOV-92-113*, June 11, 1992, p. 72.

32) "Military Service, Accord With Russia Discussed," 모스크바 라디오, 1810 GMT,

## 2. 러시아연방군의 창설

### (1) 창군 일정

러시아연방은 원래 강력한 지휘체계 하에 통합군을 유지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의 공동방위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sup>33)</sup>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와의 흑해함대 공방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둘러 1992년 2월 12일 자체군 창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조직되기 이전에 러시아가 독자군을 창설하여 구소련군 군비의 흡수통합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자체군은 물론이거니와 해안경비대 이상의 해군력 보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군사강국화를 좌시하지 않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창군 계기는 부분적으로나마 통합 방위체제의 존속을 보장하고 과거 수십년 동안 구축되어 온 단일 방공체제(unified air defense system)를 계속 보전하기 위해선 러시아가 군사강국으로서 복귀하여 구소련지역의 안보상 구심점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가 군부 지도층에 팽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34)</sup>

한편, 창설 중인 러시아군을 구성할 병력은 러시아 영내 주둔 병력, 해외 주둔 병력 및 해군 중 러시아가 관장하고 있는 병력, 독립국가연합 각 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가운데 러시아에 귀속할 것을 결정한 부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다수 장교들이 러시아계로서 러시아군의 핵을 이룰 서방전구(西方戰區)를 비롯, 북방전구 및 북서방전구, 카프카즈 군관구 병력, 카스피해함대 및 국경수비대 일부 병력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러시아군 창설 및 조직 정비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보면, 제1단계인 1992년도 연말까지 국방부와 총참모부를 구성하고 구연방군을 합법적으로 흡수할 예정으로 있다. 제2단계인 1993-94년에는 군사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고 구소련군의 지휘 및 통신체계 해체와 전구(戰區) 및 군영구(軍管區)들의 폐지에 따른 군조직 재편과 신군사기지 건설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1997년까지 이르는 제3단계 동안에는 150만 명 규모의 러시아군 창설 과

June 9, 1992, *FBIS-SOV-92-113*, June 11, 1992, p. 69.

33) Slipchenko, Major-General V., "Oborona suverennyh gosudarstv," *K. Z.*, Dec. 20, 1991, p. 2.

34) 예컨대 콘스탄틴 코베츠 장군이나 공군의 차코 장군의 주장 참조. Jan Krauze, "C.E.I.: La création d'une armée russe. La clarification nécessaire," *Le Monde*, March 18, 1992, p. 3.

정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각 병종 및 병과가 재편,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최근 「군사사고」 특집호에 발표된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의하면, 고르바초프 집권 당시부터 거론되어 오던 방공군 폐지에 따른 군종(軍種) 변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즉, 전략미사일군에서 개칭한 전략억제군, 방공군, 육·해·공군 등 5개 군종으로 전력(戰力)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구소련군의 군관구들이 폐지되는 한편, 현재의 군관구-군-사단 구조를 전략단-군단-여단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기동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 (2) 병력 규모

신생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를 논하기에 앞서 각 공화국들의 독자군 창설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잔존하는 구소련군 병력에 대한 산정이 필요할 듯하다.

1986년 2월 신군사독트린의 채택 이후, 1992년 8월 현재까지 구소련군 병력은 여러 차례 감축되어 왔다.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의 UN 연설을 통해 천명된 50만 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1990년 후반기까지 130여 개 예비사단이 해체되었으며<sup>37)</sup>, 동시에 자동화보병사단의 경우 40%, 전차사단의 경우 20%(각기 약 160여대와 250여대에 해당하는) 전차 보유량이 감소되었다.<sup>38)</sup>

그 외에도 1990년 고르바초프에 의한 일방적인 20만 명 지상군 감축이 있었으며, 1990년 11월 19일 체결된 유럽재래식병력감축협정(C.F.E. Treaty)<sup>39)</sup>과 1991년 초부터 동유럽 및 몽고 주둔 소련군이 본격적 철수에 따라 일부 병력이 해체, 감축되었다. 1991년 10월 5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70만 명 감축계획이 공

35) *Voennaia Mysl'*의 1992년 여름 특집호에 실린 러시아 군사독트린 초안의 내용은 乾一字, “新軍事ドクトリンと 獨自軍創設に見る ロシアの思想.” 「世界週報」, 1992년 7월 28일, pp. 10-16; “ロシア軍事ドクトリンの基本” *op. cit.*, pp. 17-21 참조.

36) 이 사실은 현 러시아군 지도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사포쉬니코프 장군 세력에 비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37)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I.I.S.S., 1991), p. 32; U.S.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1991* (Washington, D.C.: U.S. G.P.O., 1991), p. 96.

38) John W. R. Lepingwell, “Towards a Post-Soviet Army,” *Orbis*, Vol 36, No. 1, Winter 1992, p. 88.

39) CFE 협상이 성공리에 진행되자 NATO군에 비해 지나친 군사력 감소를 두려워 한 군부 지도층은 협정체결 이전에 지상군 장비 57,300기(機)를 우랄산맥 이동지역(以東地域)에 신속히 이동시켰으며, 일부 지상군병력을 해군 해안경비대로 이전시킴으로써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표되긴 했으나 연방 소멸 이 후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비러시아계 공화국들에 의해 귀속되지 않고 남아있는 구소련군의 병력 규모는 1990년 11월 소련 국방부 발표에 따를 경우, 그 해 초 철도공사부대 및 건설부대를 제외한 총병력은 약 400만 명을 밑돌았다. 그 후 일방적인 20만 명 감축으로 370-80만 명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징집 기피, 탈영 및 비러시아계 사병들의 모국 귀환 등으로 실제 병사들은 보다 더 적은 숫자였으리라고 추정되긴 하나, 그 당시 알렉세이 아르바토프를 비롯한 민간전략가들이 소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250만 명까지 감축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병력규모가 적어도 300만 명 수준은 초과했음을 추측가능케 하고 있다.<sup>40)</sup>

서방 관측통들은 1992년 초 러시아 군병력을 약 3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sup>41)</sup> 대통령 군사자문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장군은 러시아내에 주둔하고 있는 약 210만 명과 발트 3국 등지에서 철수할 40만 명을 합해 약 250만 명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2)</sup>

그런데, 러시아는 1992년 말부터 시작될 제1차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전역 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1992-94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약 70만 명을 감축시킬 예정으로 있다.<sup>43)</sup> 제2차 감축의 목표는 2000년까지 150만 명으로 '소수정예화' 하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상군은 60-70%, 전략미사일군을 비롯한 지상군 이외의 전략부대병력은 약 50% 감축될 전망이다.<sup>44)</sup> 2000년대의 군병력 분포 계획에 의하면, 전략억지군 10만, 일반목적군 90만, 신속대응군 10만, 지역방위군 40만 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들 150만 정규군 이외에도 50-70만 명 수준의 상비예비군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Aleksei G. Arbatov, *Oboronitel'naiia dostatochnost' bezopasnost'*. (Moscow: Znanie, 1990), p. 62.

41) J. W. R. Lepingwell, "Towards a Post-Soviet Army," *op. cit.*, p. 97.

42) O. Vladykin, "Rossiiskaia armii priobretat vse bolee chetkie kontury," *K.Z.*, April 16, 1992, p. 1; 또한 CIS 통합군 사령관 샤프쉬니코프 장군은 이태리 일간지의와의 대답에서 국내 주둔 병력을 220만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Italian Daily Interviews Shaposhnikov," *La Repubblica*, April 23, 1992, p. 12, *FBIS-SOV-92-081*, April 27, 1992, p. 12.

43) Iuliia Paniushkina, "Rossiiskie vooruzhennye sily; pochti real'nost'," *N.G.*, May 15, 1992, p. 4.

44) 통합군 사령부 인사국 차장 사모이로프 중장의 대담 기사, "러시아 독자군병력 백만 명 선으로 축소," 『東亞日報』, 1992년 3월 28일, p. 4, 『산케이신문』, 3월 28일자에서 재인용.

### III. 러시아연방군의 인력충원 체제

1992년 5월 7일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군 창설 계획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러시아군은 개병제와 지원제를 복합한 혼합병제(smeshannaia sistema komplektovaniia)를 통해 충원될 것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의회는 혼합병제를 명시한 '징집 및 군복무에 관한 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1967년 이후 구소련군이 세계 최대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보편적 의무병역법'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1964년 정권을 장악한 브레즈네프와 코시긴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흐루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네탕트는 끝나고 동·서 양진영이 다시 냉랭한 분위기로 몰입하고 있었던 반면, 혁명은 물론 세계대전도 겪지 못한 당시 젊은이들은 갈수록 이념적으로 해이해지고 물질문명에 젖어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탈스탈린화 정책에 힘입어 여기 저기서 대두하기 시작한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적 성향도 크레믈린의 새주인들로 하여금 한껏 긴장토록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한 브레즈네프 정권은 당시 소련사회의 '심리적 이완을 효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보다도 군(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련 정부는 1967년 10월 12일 '일반의무병역에 대한 법령'을 전격적으로 선포하여 가능한 한 많은 소련 젊은이들이 군을 거쳐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신교육 및 신체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군은 바야호로 수백만의 징집 청년들에 대한 이념무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전인민적 교육장(全人民的 敎育場)'으로서의 기능을 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보편적 의무병역(bseobshchaia voinskaia obiazannost') 원칙에 기초했던 구(舊)병역법과 신병역법을 비교할 때, 신병역법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편적'이라는 개념의 상실이다. 신병역법에 의하면, 러시아 시민은 징집 연령에 도달하면서부터 병역의 의무를 자원하여 이행하거나 군복무에 대신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근무(alternative state service)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러시아 시민은 이제부터 과거와 달리 어느 누구나 의무적으로 병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징집을 원치 않는 젊은이들은 대체 근무를 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면제나 징집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즉, 미망인의 외아들이나 징집 혹은 자원에 의해 이미 군복무를 한 자가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과거와 다름없으나 이제는 자영농업 농부들이나 고학력의 농촌 의사들도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계약 복무에 자원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와 20

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이며, 이들은 소속 부대가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신체적 훈련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는 부대장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또한, 남편이 군인이며 취학 자녀가 없는 여성도 각 군의 사병급이나 하사관급으로 자원할 수 있다. 계약 복무기간은 기본적으로 2-3년이며 당사자와 소속 부대장 양측이 합의하면 3년,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등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부후보생의 경우 첫 계약은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반면에, 계약 복무를 원하지 않는 정집병들의 복무 여건도 달라졌다. 지난 4월 4일 발표된 1992년 봄 징집령에 의하면, 복무기간 또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해군 소속 사병 및 하사관은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지상군을 비롯한 기타 병종의 사병 및 하사관은 과거 2년에서 6개월이 줄어든 18개월동안 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징집령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병들과 하사관의 경우에는 단지 1년만을 복무하도록 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sup>45)</sup>

이와 같이 혼합병제를 명시한 신병역법의 발효를 통해 신생 러시아군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가에서만 있어왔던 직업군적인 요소를 부분적이거나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5월 7일자 대통령령은 군을 단계적으로 직업군화해 나가기 위한 소요 예산을 산출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하달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치권이 군으로 하여금 앞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하도록 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IV. 지원병제 도입의 배경

##### 1. 새로운 군사독트린의 수용

1986년 2월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신사고' 군사독트린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양적 우세의 공세전략에 물들어 있던 고위 장성들로부터 결코 자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군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히자 페레스트로이카 주역들은 군사문제가 이제 더 이상 군부에 의해 독점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은 물론, 민간전문가들 역시 신군사독트린 수립 및 규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입장은 1987년 5월호 「코무니스트」지에 발표된 글에서 고르바초프 자문역이었던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가 민간 연구기관들도 군사독트린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45) "Yeltsin Decree on CIS Army Draft Jurisdiction," K.Z., April 7, 1992, p. 1, FBIS-SOV-92-067, April 7, 1992, p. 13.

그로부터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안드레이 코코신, 세르게이 블라고볼린 등의 민간전략가들이 과거 수 십년 동안 군 고위간부들의 독점물이었던 군사독트린에 대한 논쟁에 기꺼이 뛰어 들었고, 이들은 소위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개념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선 대규모 군병력의 감축 및 개병제 폐지가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sup>46)</sup>

군부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학자들의 급진적 군 개편론은 8월 쿠데타 직후 사포쉬니코프 신임 국방장관의 군 개혁안에 크게 반영되었다. 독자군 창설을 주장하는 공화국들에 대해 여전히 강압적이고도 책임 추궁식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직업군으로의 점진적 전환 및 복무기간의 단축, 징집병들의 비율 감축과 지원병 지분 증대 등, 비교적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제 도입 시기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으며, 직업군화는 다만 하나의 궁극적 목표로서 제시되었을 뿐이었다.<sup>47)</sup>

직업군화 과정과 관련한 군사사고의 진보적 수정은 러시아군 창설에 즈음한 신군사독트린의 구상으로 급진전하였다. 1992년 여름 군사전문지 '군사사고'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군사독트린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전문(前文) 및 10개 항목의 2개 부로 구성되어 있는 신군사독트린 초안의 핵심은 '정치, 경제적, 혹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쟁, 무력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부정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력분쟁이나 전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종교적, 인종적 모순이 잔존한다'고 지적함으로써 타국으로부터 전쟁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증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군사독트린은 제2부에서 '대량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존재하고 각국이 선제 불(不)사용 의무를 거부하는 한, 전쟁방지를 위해선 방위에 충분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충분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분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은 세계 핵전쟁이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국지전 및 군사분쟁의 발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증대되었으며 이에 충분한 전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규모 재래식 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46) Andrei Kokoshin, "Razvitie voennogo dela i sokrashchenie vooruzhennykh sil i obychnykh vooruzhenii," *MEIMO*, No 1, Jan. 1988, p. 29; S. Blagovolin, "Voennaia moshch': skol'ko, kakaiia, zachem?," *MEIMO*, No. 8, 1989, pp. 10-11; Stéphane Meylac, "La doctrine de défense soviétique et la 'suffisance raisonnable'," *Défense nationale*, 46e année, March 1990, pp. 27-28; Robert Arnett & Mary FitzGerald, "A Voluntary Red Army?" *Orbis*, Vol 34, No. 3, Summer 1990, pp. 398-402.

47) J. W. R. Lepingwell, "Towards a Post-Soviet Army," *op. cit.*, p. 94.



이다.

이러한 대외적 군사·안보 환경의 평가는 군 인력충원 방식의 선택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새롭게 창설되는 러시아군은 과거 수 십년간 구소련군이 견지해 온 양적 우세의 공세전략을 포기하고 최첨단 정밀무기를 갖춘 직업군 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1991년 걸프전은 구소련의 군사기술 및 작전의 부적절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라크군이 사용한 구소련제 병기들이 서방 장비들에 비해 뒤떨어짐이 직접 판명된 기회였다. 이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러시아군 지도부는 무려 550만 명이라는 대병력 유지에 전전근궁했던 구소련군의 우(愚)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양적 우세의 전략개념 포기를 표방하고 나선 지금, 지원병제 요소의 도입은 신군사독트린의 채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군의 현대화에 따른 인력의 자질 제고(提高)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의하면, 향후 러시아군은 방어충분성의 개념아래 모든 국경지대에서 기동타격병력에 중점을 두는 '적극방위전략'을 채택하여 국토를 수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신속대응군'이라는 새로운 군종을 상정하고 있다. 약 10만 명 규모로 조직될 예정인 신속대응군은 공중기동에 적합한 경(輕)장비의 자동차화 저격사단, 해병, 수송항공병력, 헬기부대 및 지원병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미 계획된 4개 경(輕)자동차화 저격여단 창설은 금년 중 공정부대와 수송항공부대를 기초로 편성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다.<sup>48)</sup>

그런데, 고도의 기동성을 요구하는 신속대응군 뿐만 아니라 공군 및 해군 지도층 장성들은 그들대로, 군사기술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2, 3년 만에 제대해 버리는 나이 어린 징집병들이 아니라 군인정신이 철저하고 경험 많은 지원병들을 배속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군을 구성하는 여러 군종들을 끌고루 최첨단 장비 및 기갑차량을 갖춘 기동력있는 병력으로 균형있게 재정비하기 위해선 일관성있는 현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장비 취급을 위해선 전문 인력의 충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징집병이 아니라 능숙한 군사기술과 풍부한 복무 경험을 갖춘 직업군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군 지도부는 고급인력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새로운

48) 설원태, "러시아, '신군사독트린' 마련 군사력 정비착수," 「세계일보」, 1992년 7월 30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sup>49)</sup>, 군사교육기관 재정비 및 개선방안 모색에 애쓰고 있다. 또한 지원병제의 도입 및 정착을 통해 군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간부들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련체제하에서 당성(黨性)을 증시함으로써 소홀했던 창의성과 책임감 고양을 강조하며, 구미국가들에서 보이는 실적우선주의(實績優先主義)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아울러 수세적(守勢的) 신독트린이 채택된 지 6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간 전문가들은 지상군의 기동성을 약화시키므로써 공격 혹은 반격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세적 방어전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0)</sup>, 현역전략가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격전략(反擊戰力)에 있어서의 합리적 충분성을 내세움으로써 고도의 기동력을 갖춘 상당 규모 병력의 필요성을 고집스럽게 역설해오고 있다.<sup>51)</sup>

따라서, 새롭게 창설되고 있는 러시아연방군 또한 순수한 수세전략을 전면 수용, 이에 충실할 것이라고만 단언한다면 지나친 속단일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군 조직체계가 정비되는 것과 함께 군 고위장성들이 막강한 역공세 전력 확보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쟁을 새롭게 재개할 가능성도 매우 짙다. 그들에게 있어 '방위충분성'이란 모스크바가 반격하기 이전에 적의 1차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국제사회 속의 러시아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의 정립'을 위해 군의 현대화 및 직업군화 추세는 시간을 두고 더욱 증대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오늘날 과거 나토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세독트린을 바탕으로 최정에 병력과 최첨단 장비들을 북방전구, 서방 및 발트 전구에 전진 배치해오던 상황에서, 분리 독립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가 영내 소재 장비들을 선점해 버린 지금, 러시아 지도층은 러시아가 보유하는 병력 및 장비가 겨우 2급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2)</sup>

따라서, 새로 창설되는 러시아군은 기능면에서 보다 우수한 무기 및 장비를 개발해야 하며, 최고도의 정확성을 지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을

49) D. R. Herspring, "The High Command and the Future of the Soviet Military Personnel System," *op. cit.*, pp. 189-196.

50) A. Kokoshin and V. Larionov, "Kurskaia bitva v svete sovremennoy oboronitel'noi doktriny," *MEMO*, No 8, 1987, pp. 32-40; 심경옥,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소련의 군사전략 변화," 『안보학술논집』,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제1집, 제1보, 1990년, p. 395.

51) J. W. R. Lepingwell, "Towards a Post-Soviet Army," *op. cit.*, p. 97.

52) "Khasbulatov, Grachev Meet Defense Officials," *ITAR-TASS World Service in Russian*, May 8, 1992, 1339 GMT, *FBIS-SOV-92-091*, May 11, 1992, p. 40.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나토가 더 이상 유일한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소련군에서 계승한 동일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CIS내 가맹국들과의—그라체프 장관에 의하면 과거 소련의 전진배치 전략의 결과로 러시아보다 우수한 장비를 점유한—복합적인 갈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해 있는 상황에서 군의 현대화 및 전문인력 확보는 군 지도부로서는 반드시 해결하기 않으면 안되는 선결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sup>53)</sup>

### 3. 군 내부규율 및 기강확립

소련 말기의 연방군은 이미 고참병의 신참들에 대한 학대, 기강해이 및 사기저하, 정병기피 및 병영 이탈<sup>54)</sup>, 러시아계 사병들의 문맹과 비러시아계 사병들의 러시아어 소통불능, 정훈교육질서 파괴, 장교단의 고령화 및 지휘관들의 자질저하, 소연방 내의 다양한 민족분포로 인한 장교·사병 및 사병들 간의 갈등과 반목 등, 복합적인 문제들에 당면해 있었다.

러시아연방군의 창설이 진행 중인 오늘날에도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붕괴와 민족분쟁,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된 사병들의 이탈과 소집 연령층의 징집기피로 말미암아 각 부대는 극단적인 경우 소소 병력의 절반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sup>55)</sup> 충원율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부대는 작전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런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지휘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초소 교대를 하루에 두 차례 밖에 할 수 없으며, 이들 경비병들은 아예 훈련조차 받을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다른 지휘관들은 사병들의 부족으로 일부 장교들까지 무장하고 초소 경비를 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53) 최근 군 고위장성들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가상적국으로 겨냥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군 참모차장 I. 쿠즈네초프 중장은 주요 일간지와 대담에서 "과거 NATO군에 대치해온 구 소련군의 일선 정예병력을 승계한 우크라이나에 비해 러시아의 통상군 전력은 병력에서뿐만 아니라 병기 및 군비면에서 3대 1 비율로 약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Pavel Fel'gengauer, "Segodnia prezident El'tsin dolzhen podpisat' ukaz o sozdaniia rossiiskoi armii i flota," *N.G.*, 1992년 5월 7일, p. 1, p.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숫적으로 월등한 병력을 보유하고 구(舊)소련 핵병기도 내다수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비 군사력 약세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은 물론 러시아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54) 1989년의 경우 한해동안 전년도에 비해 5배나 많은 6천 명이 이탈하였으며, 1990년에는 40만 명이 징병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55) O. Vladykin, "Rossiiskaia armii priobretaet vse bolee chetkie kontury," *op. cit.*

지적한다.

과거 공세독트린의 영향으로 소련의 유럽권에 전진 배치되었던 병력이 오늘날 일부 공화국들의 독립으로 인해 매우 약화된 것이 현 상태이다. 우랄산맥 동부에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더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군 최고사령부 참모차장 미하일 콜레스니코프 장군에 의하면, 1991년 가을 소집 당시 폴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및 그부지야의 청년들이 응소하지 않았으며, 1992년 봄에는 카자흐를 제외한 모든 공화국들이 자국 청년들의 출신지의 배속을 거부하고 나서 러시아만이 통합군에 인력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소련군의 명실상부한 계승자인 러시아군은 소련 말기의 연방군이 가지고 있었던 병영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가장 심각한 일은 소집된 지 얼마 되지않은 신참병들을 상대로 한 고참병들의 횡포와 폭력 사용, 소위 '데도프시취나' 현상(dedovshchina, 혹은 starikovshchina)이다. 제정군(帝政軍)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병영내 관습으로서 10월 혁명 이후에도 복인되어 오던 고참병들의 횡포는 연방 붕괴와 함께 민족과 민족간의 반목이 깊어지면서 더욱 포악한 성격을 띠어 왔다.

또한, 군내 명령체계의 붕괴로 인한 부패 및 부조리의 만연, 전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위기의식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 현재 군 기강과 사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사병들 뿐만 아니라 장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부대에는 장교들간의 자율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특정 정치성향을 표방하면서 기금까지 조성해 두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sup>56)</sup>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군 자체 조사결과는 장교들을 포함한 병영내 자살률이 1937년 대숙청 당시의 기록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sup>57)</sup> 군인들의 사기 및 기강의 위기가 이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군이 창군과 동시에 군 내부의 복합적인 폐해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군 조직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군 지휘부로서는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하루 아침에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략적 비중이 비교적 큰 전투부대 단위는 다수 직업군인들로 구성된 정예병력으로 편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원병제의 단계적 도입은 이같은 군내부 질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다 용이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56) "Chto proishodit s armiei?," *Argumenty i Fakty*, March 1992, p. 2.

57) 샤포쉬니코프 장군의 이태리 일간지와와의 대담, "Italian Daily Interviews Shaposhnikov," *Lu Repubblica*, April 23, 1992, p. 12, *FBIS-SOV-92-081*, April 27, 1992, p. 12.

V. 혼합병제 시행과 향후 전망

1989년부터 시작된 지원병제 도입 논쟁에서 고위 장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직업군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싼 비용이었다.<sup>58)</sup> 당시 야조프 국방장관이나 모이세예프 참모총장은 한결같이 지원병제를 전면 수용할 경우 국방예산은 7, 8배 증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한 보수적 색채를 띠었던 이들의 논리가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8월 쿠데타 이후 1990년 말 소련 국방부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국방예산의 3-4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된 바 있다.<sup>59)</sup>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전환 비용(transformation cost)과 이를 위한 병력 감축 비용은 직업군대의 유지 및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병력을 1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약 60만 명의 장교들도 함께 군복을 벗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전역 수당은 상당한 액수이다. 현 장교단 유지비는 한해 약 9백억 루블 정도이나 한 두 해 사이에 30만 명을 전역시킬 경우 제대수당만도 3천억 루블이 소요된다니 현 러시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힘겨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sup>60)</sup>

제다가, 혼합병제의 실시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군은 현재 국방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1991년 국방비의 지출 상황을 보면 예산 중 40%가 무기구입에 할당되었던 반면, 32%만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sup>61)</sup>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연간 총수요 식량 중에서 육류 4개월분, 야채 6개월분, 계란과 우유는 전량을 자급자족해야 했다. 몽고와 동유럽에서, 또한 비러시아계 공화국들로부터 귀환한 장교들과 군속들의 처우문제,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등도 예산의 태부족으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sup>62)</sup>

58) M. A. Moiseev, "S pozicii oboronitel'noi doktriny," *op. cit.*; Dmitri Iazov, "Na osnove novogo myshleniia," *K.Z.*, April 13, 1989, pp. 1-2.

59) "Kontseptiia voennaia reformy," *Pravitel'stvennyi vestnik*, Nov. 1990, p. 8.

60) C.I.A. 슬라브-유라시아권(圈) 국장 맥롤린(John McLaughlin)의 경우 군부 보수세력의 압력으로 군병력이 계획대로 감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00년 전까지 현 정부가 주장하듯 150만 명 수준으로 소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장담하고 있다. Steven Greenhouse, "Post-Soviet Arms Industry Is Collapsing," *New York Times*, June 9, 1992, p. A3.

61)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경우 올해 국방예산 중 시설운영비에 22%, 무기획득비에 35%, 그리고 인건비에 43%가 할당되었으며, 서방 국가들은 국방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62) 현재 약 25만 명의 장교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 S. Miasnikov, 1992년 8월 24일,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내용.

그런데, 계약 복무를 자원하는 군인들에 대해선 징집병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무환경 또한 훨씬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CIS 통합군 행정국장 이바쇼프 소장에 의하면, 지원병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는 데 추가 소요되는 비용만을 보더라도 1992년 4월 화폐치로 약 130-150억 루블이나 된다.<sup>63)</sup>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혼합병제의 시행이 과연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인 듯하다. 인플레이와 물가폭등으로 사회 전체가 곤경에 빠진 현재 러시아 청년들이 국토방위라는 험거운 희생과 특수한 노동에 대한 댓가로 계약시 손에 넣는 약 2천 루블의 지원금이 결코 매력적일 수 없다. 게다가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군 자체가 지원병들에게 대한 급여를 보장할 만한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1년여 전에 북해 함대가 실험적으로 계약에 근거한 지원병들을 배속받은 바 있으나 이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그 주요 원인은 충분한 예산이 할당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족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데 있었다.<sup>64)</sup>

그렇다면 전략군만이라도 완전 편제를 허용할 만큼 흡족한 수의 러시아 청년들이 군 입대를 자원할 것인가? 그것도 러시아연방 내에서 타타르 자치공화국, 바쉬키르 자치공화국, 야쿠치야, 불고그라드, 아르한겔, 그리고 첼랴빈스키 자치구 등의 출신 청년들은 타향 혹은 타국에서의 군복무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65)</sup>

그렇다면, 신생 러시아군이 바람직한 소요 인력 충당을 위해 당연한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과연 없을 것인가? 해군 총사령부 작전국장 V. 프로조로프 제독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와의 대담에서 징병제의 완전 포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일반 사병은 물론 하급 지휘관들 또한 직업군인이어야 한다. 2년의 의무병역 끝에 전문인이 된다는 것은 망상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사정으로 보아선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하사관들과 일부 사병들도 계약제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군종 및 병과에선 일반 징집병들이 배치될 것이다.<sup>66)</sup>

프로조로프 제독의 발언은 그가 군 지도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63) "CIS General on Yeltsin's Armed Forces Decree," *ITAR-TASS*, 1200 GMT, May 8, 1992, *FBIS-SOV-92-091*, May 11, 1992, p. 9.

64) Viktor Litovkin, "Ukaz o prizyve problem ne reshit," *Izvestia*, April 4, 1992, p. 3.

65) 위의 글.

66) V. Fatigarov, "Osenennyi Andreevskim flagom," *K.Z.*, May 21, 1992, p. 2.

할지라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군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혼합병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오히려 과거 소련군 체제하에서처럼 징병제적 요인을 강화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

과거 소련군의 인력 공급을 위해 우리의 병무청에 해당되는 '보엔코마트'(Военкомат, Военный комиссариат)<sup>67)</sup>는 전투부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방내 백 수 십여 민족 출신 사병들을 그들의 신분과 러시아어 실력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 배속시켰다. 그 결과 전략미사일군, 국토방공군, 해군과 같은 전략적 중요성이 앞서는 군종의 경우 슬라브인들이 80%에 이르는 반면, 스프로이바트(Строительный батальон: Стройбат)라고 불리우는 건설부대와 철도공사부대,<sup>68)</sup> 그리고 내무부 소속 치안경비대 등의 비전투부대의 경우에는 비슬라브계 출신이 90%나 차지하였었다.

지난 날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 또한 전투부대 내의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에 대한 징집병 배속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교육수준과 러시아어 회화능력<sup>69)</sup>에 있었다면, 비러시아계 징집병의 대다수가 이탈해버린 오늘날 상황에서는 배속 기준은 우선적으로 지원병과 징집병, 지원병과 대체근무병의 구별에 주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계약 근무를 자원하는 직업군인들이 전략적지군, 신속대응군 등의 최우선 전력에 집중 배치되는 반면, 징집병이나 대체근무병들이 이들 군종에 있어서의 비전투병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징병제적 요소를 보전함으로써 확보되는 징집병 및 대체근무병들은 따로 모아 핵심 전략병력이 아닌 차치대 병력이나 준군사적 병력, 예컨대 철도공사부대나 건설부대에 흡수될 것이다.<sup>70)</sup> 군복무에 못지않은 난이도를 지녀야 하며,

67) '보엔코마트'의 임무와 역할은 서방국가들의 징집관련기구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며 포괄적이다. 근무하는 대다수 장교들이 슬라브계인 '보엔코마트'는 18세에 이른 징집대상자들의 신상과 주변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5군 중 어느 군의 어느 병과에 배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무를 지고 있었다. 소연방 구석구석에 신경망처럼 퍼져있는 이 조직이 없었다면 소련군이라는 거대한 기구의 인력 수급 및 배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8) 건설부대와 철도공사부대는 소련군에서 가장 모슬렘계 청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부대이다. 이들 부대에선 슬라브계는 약 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중앙 아시아의 모슬렘계는 절반을 훨씬 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프카스 출신이나 발트계, 대체로 반러시아적 성향이 강한 서부우크라이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경욱, "소연방 다민족사회에서의 군의 역할: 과연 군은 민족통합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 『中蘇研究』, 제14권 제4호 1990/1 겨울, pp. 123-173 참조.

69) 그외에도 건강상태, 전과 유무에 대한 범죄기록 뿐만이 아니라, 출신 민족성, 특히 출신 민족의 소비에트정권 내지 러시아민족에 대한 전통적 기본자세까지도 고려되었다. 심경욱, *op. cit.*, p. 152.

보다 장기적인 군무를 요구하게 될 대체근무병들은 현재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병원이나 탁아소, 심지어 광산 및 오지의 건설 현장, 혹은 방위산업체 및 군사 요새, 군납 농장 등에 집중 파견될 것이다.

결국, 완전 개병제에서 혼합병제로의 이행은 전문화된 소수정예 직업군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저하 및 규율 이완 등의 복합적 위기에 봉착한 러시아군으로선 절실한 방안이며,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에 대한 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기준은 매우 엄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군 지도부가 제정러시아군, 그리고 소련군으로부터 인력정책에 관련하여 물려받은 전통과 경험을 고려할 때, 약 5, 6년간의 과도기를 지나면 정상적 혼합병제 운용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된다.

## VI. 맺 음 말

구소련군을 계승하게 될 신생 러시아연방군은 소련 말기에 연방군이 직면했던 복합적인 내부 문제들 또한 승계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공표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구소련군의 1/3 병력만을 갖출 러시아군의 '직업군화' 시도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안으로 보여진다. 러시아군이 지원병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 소요 인력을 충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신제 요원의 직업전문성이 제고(提高)되고 군내부 기강 및 질서가 개선되며, 동시에 군 구성요원들 간의 결속강화 등, 그 외에도 폭넓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군 고위층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같은 긍정적 효과가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대규모 병력의 수백만 감축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기간요원들을 제외한 사병급 유지경비만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미국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원병제를 지향하는 러시아군의 병력규모는 현재 러시아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에서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원병제에 기초한 인력충원은 경제적 여건이 허용치 않는 현 상황에서는 몇 단계의 과도기를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징병제의 경제성과 병력의 양적 확보라는 이미 경험한 이득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군 지휘부의

70) 구(舊)소련군하에서 군관련 건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용 건물들의 건축 및 수리 공사를 맡아했던 스프로이바드는 훈련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병영내 기강이 헤이한 것은 물론 사병들간의 민족적 반목 등의 폐해가 심해 소련 말기부터 해체설이 떠돌았으나, 현재 러시아 경제사정이나 군 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참으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 부대를 해체할 전망은 다소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소극성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혼합병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알렉산드르 루츠코이가 지적하듯이<sup>71)</sup>, 러시아의 젊은이라면 하나도 예외없이 부기를 다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3, 4 개월의 훈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징집제적 요소를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도 없지 않다. 아울러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군 인력자원이 일부 계층으로부터 충원될 때 야기되는 군의 사회대표성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개병제도의 귀환 논의가 재현되리라는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sup>72)</sup>

창군(創軍)과 동시에 러시아연방군이 직면하게 될 현대화 과제는 군인력의 전문직업성 전작은 물론, 최첨단 장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새세대 무기도입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주변 공화국들의 독립과 독자군 창설로 말미암아 군 행정체계 및 통신망이 분해, 파괴된 상태에서<sup>73)</sup> 러시아군이 정상적 조직으로 기능하기까지에도 이미 적지않은 난관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군에 할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짧은 시일 내에 만족스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도의 기동성을 지닌 전문화된 직업군체제를 확립 시키려는 러시아 정치군사 지도층의 야심이 충족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71) "Rutskoy Sees Need for Armed Forces 'Renewal'," *ITAR-TASS*, 0840 GMT, May 9, 1992, *FBIS-SOV-92-091*, May 11, 1992, p. 31.

72) 모병제를 성공적으로 수용한 사례로 손꼽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89년 한때 군의 사회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John Lehman, "The Saving of the U.S. Military: Reservi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7, 1989, p. 5; William Pfaff, "Let's Have National Service for a Nation of Citizens," *I.H.T.*, July 4, 1989, p. 4.

73) CIS 통합군 행정국장 Leonid Ivashov 소장과의 대담, "CIS General on Yeltsin's Armed Forces Decree," *ITAR-TASS*, 1200 GMT, May 8, 1992, *FBIS-SOV-92-091*, May 11, 1992, p. 9.

The New Manning System in the Russian Armed Forces  
: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

Shim Kyong-wook

On May 9, 1992, President Boris N. Yeltsin signed a decree that would create a new streamlined Russian army, striking a final blow to the Red Army that once projected Soviet power from Berlin to Kabul. Russia took under its jurisdiction, adding to the units located within its boundaries, the Western, Northern, and Northwestern Groups of Forces, the troops stationed on the territory of Transcaucasia, the 14th Army in Moldova, the border troops, and part of the Caspian Flotilla.

By late May 1992, the newly-transformed Ministry of Defense prepared a draft of Russia's defense doctrine. First published in the special issue of the journal *Voennaia Mysl'*, this official statement presumes structural transformations deriving from the performance of the allied forces in the Gulf. That includes a

viable rapid deployment capability, mobile airborne forces, effective transport and logistics along with mobile support forces. Reconfigured Russian forces would thus make a small, mobile, modern, professional, and civilized army.

In this context, the rejuvenated military leadership vows to firmly establish a mixed conscription and voluntary contract recruitment system, providing a functioning alternative service. In fact, the change from the mandatory conscription system to a voluntary system will be necessary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Russian Army beset with low morale and lax discipline. During a series of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luntary system since 1989, however, most generals objected to the idea on the ground that it is simply too costly to maintain a professional army. Furthermore, the transformation cost and other expenses for the reduction of troops should precede any expenses for the maintenance of a professional army and the related facil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would the mixed manning system have any future in Russia? While there are few detailed and reliable information on the above issues, it seems safe to say that there are no grounds for optimism. As the society is besieged by the price hikes, the Russian youths are not likely to opt for the contract subsidy of 2,000 rubles in exchange for the rigor in the barrack life. After all,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rmy can secure enough financial sources for volunteers' wage.

The only way for the Russian Army to overcome the present financial constraints might be to preserve the conscription elements: NCOs and some servicemen will serve on a contract basis, and to those branches and positions that do not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 the ordinary enlisted men will be assigned.

On the other hand, while the criteria for assignment to combat or non-combat units and the combat or non-combat roles within the combat unit were the levels of education and spoken Russian in the past, the criteria for assignment today will be based up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cripts and the volunteers and between the volunteers and the substitute servicemen. That is, the professional soldiers who volunteered for a contract service will be mostly assigned to the priority units in the Strategic Deterrent Forces and Rapid Deployment Units.

The conscripts and the substitute servicemen secured from the conscript

system will not be assigned to the core forces, but to regional defense or para-military units such as railroad and construction units. The substitute servicemen, whose job requires a relatively high level of difficulties and a longer-term service, will be assigned to those places that have a chronic shortage of manpower, including hospitals, mines, defense factories. The more difficult the supply of manpower becomes because of financial conditions, the stricter the criteria becomes on the supply of manpower.

Given the above situations,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at the Russian Army is facing will not necessarily result in a large-scale reduction of troops. On the contrary, the end result may be widely different from the wishes of the current military leadership—to organize into a professional elite force.